예산 삭감과 획득의 관계

1987會計年度보다 약 2백80억불이 적은 2천8백60억불 상당의 1988회계년도 國防豫算이 그 審議期限日인 1987년 10월 1일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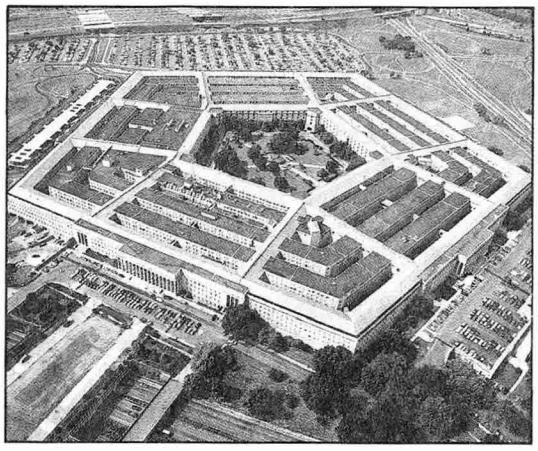
국가방위산업단체의 몇몇 會員들은 이를 계속되는 산업퇴조의 징후로 여겼다. 반면에 다른 회원들은 전투장비와 전투지원장비의 연구·개발 및 획득에 사용된 국방예산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비록 전략방위계획(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이는 이미 12개월 전에 SDI로인해 연구·개발 자금중의 2백10억불 상당금액이 지출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대다수 의원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폐기된 계획이 실제로는 몇개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美 海軍은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2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더우기 TRIDENT II와 TRIDENT 잠수함 탐지장치의 개량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美 陸軍은 비록 축소되었기는 하지만 輕 헬리콥터 실험(LHX)과 中型 對裝甲 무기체계(AAWS-M), 無人차량, 前方방공체계(FAADS) 계획등의 계속 추진을 승인받았다.

美 空軍은 한때 근근이 마련해왔던 小型 대륙간탄도탄 MIDGETMAN을 위한 자금에 덧붙여 重수송기, 개량전술전투기(ATF), 근접지원기(CAS) 그리고 기타 항공기의 개발계획을 위한 자금을 배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일례로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60억불을 마련하기 위하여 Component System을 포기해야 했으며, 육군은 LHX의 電子장치와



외부장갑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무게와 가격을 낮추었다.

그리고 공군은 2백10대의 항공기와 3백60억불의 비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C-17 重수송기와 항공전자공학 연구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결정하였다.

美 국방장관 Frank Carlucci는 작년 12월에 1989회계년도 국방예산 재수립과 관련하여 軍수뇌들에게 지침을 하달하며, 1989회계년도 국방예산을 3백30억불 가량 감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액수는 본래 계획되었던 3천3백20억불의 10%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前年에 비해 2%가 증가한 셈이다.

前任 국방장관이었던 Caspar Weinberger와는 달리 Carlucci 국방장관은 예산문제로 인해 기존의 계획을 폐기시키기보다는 계획의 실현기간을 늘려서 추진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해군사령관 James Webb가 TRIDENT II와 A-6F 제트기 건조계획의 포기를 발표했을 때, 그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며 MIDGETMAN 계획의 종결에 동의한 공군사령관 James Aldridge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정치적 군사적

현실내에서만이 실현가능한 것이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Mikhail S. Gorbachev와 Reagan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INF 협정은 유럽에서의 저지전략을 핵무기 중심에서 非핵무기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NATO의 생존을 위한 서구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 작업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非核武器 획득에 있어서의 무모한 활동을 상당히 제거시켜 준다. 이 분야에서의 예산감축은 조달과 계획폐기를 막아주는 생산방법등과 절충을 이룰 것 같다.

NATO의 새로운 방위현대화 작업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노력이 INF협정 체결직후 곧 발표되었다. 10개 NATO 회원국의 업체들은 「共同」의 海上, 對空, 對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국방성의 믿을만한 한 소식통에 의하면 NATO 공동방위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간의 합작사업팀 구성은 1989회계년도 예산삭감을 상쇄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오랜동안 미국의 취약분야였던 地上軍을 위한 근접지원기는 지상군의 증가때문에 신속한 진보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美 공군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근접지원기를 원한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최근에 美 공군은 Boeing, General Dynamics, Lockheed, Northrop, Rockwell International社등에 A-10 근접지원기의 후속기종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2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6개사중 5개사의 신형기종이고 다른하나는 General Dynamics社의 개량 F-16기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A-7機 제조회사인 LTV는 운이 나빴다. 미 공군은 일찌기 A-7의 개량기종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국방차관 Wiliam Taft 4세가 개량형 A-7기와 별차이 없는 가격으로 보다 진보된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6개의 미국 항공사들은 근접지원기의 소요와 디자인 연구를 완결짓기 위해 국방성으로 부터 2천만불을 받았다.

근접지원기 현대화 계획에 참여하는 이들 경쟁업체들이 과연 미국의 개량전술전투기 연구기간중에 습득한 정보를 共有할 것인가?

그들이 유럽의 EFA와 이스라엘의 LAVI등에서 얻은 경험들을 서로 제공할 것인가?

그들이 과연 Fort Benning에 있는 보병학교와 Ft Leavenworth에 있는 전투병과개발센타(CADC)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근접지원기가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유럽戰場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들 6개 업체가 NATO 부대장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근접지원기는 지상군 지휘관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A-10기가 안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는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근접지원기가 수행해야될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육군과 공군간의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미 공군은 우수한 근접지원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없었다.

어쨌든 국방성은 6개회사에 의해 완성될 근접지원기 연구에 대해 그 어떤 특별한 단서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성은 특히 전세계적인 획득전략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근접지원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접촉을 가졌어야 했을 것이다. *

〈MILTECH 88/2〉

— 해외사업부 (譯)